나를 뛰어넘다 SmArt 동강대학
http://www.dkc.ac.kr 062-520-2552~5 SMART 동강대학

光州日報

당신의 재산증식 동반자
정기예금 1년 5.11%(복리)
동양저축은행 | 226-0180

광주 -1/15℃ 목포 0/14℃ 여수 3/11℃

단기 4344년 (음력 2월 14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 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8930호 1판 2011년 3월 18일 금요일

원전사고 대비책 부족하다

영광원전 유사시 대피로 협소 혼란 우려

환경·안전 감시센터 "방재시스템 마련 시급"

"일본같은 대지진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다면 영광원전의 안전성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17일 영광원전환경·안전감시센터 박응섭 소장은 "일본 후쿠시마현 원전폭발 사태가 실제로 발생하리라고는 전문가들조차 예상하지 못했다"며 "영광원전이 이중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보다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내진설계가 더 약해 일본 대지진같은 비상사태가 온다면 안전을 장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영광원전환경·안전감시센터는 민관 합동기관으로 영광원전의 방사능 누출과 안전을 감시하는 사실상 유일한 지역단체다. 소장을 포함해 9명이 모두 원자력과 환경공학 등을 전공한 전문가들로 관내 15곳에 설치된 방사선 측정장치(모니터링 포스트)와 원전 주변의 공기, 흙, 농수산물의 시료 채취를 통해 방사능 누출을 감시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박 소장은 "15곳에서 측정된 방사선 수치를 관내 곳곳에 설치된 전광판으로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는데 일본 원전사태 이후에도 아직까지 방사선량이 기준치(0.01msv)를 초과한 적은 없다"며 "불안한 마음에 센터로 문의하는 주민들의 전화가 폭주해 지난 12일부터는 이장들의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방사능 분석결과를 통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단체를 비롯해 영광주민들이 걱정하는 영광원전의 문제점은 체계적인 방재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자연재해 등으로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도피로가 협소해 주민들의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데 있다.

원전사고시 직접적인 피해지역인 '원전비상계획구역'(원전 반경 5km)에는 현재 3개 읍면 1만4975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비상시 이들이 탈출할 도피로인 원전(홍농읍 계마리)에서 홍농읍 사거리까지의 7.1km는 2차로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이 구간은 평소에도 출퇴근시간에 교통혼잡이 심각한 곳으로 원전사고 발생시 제 시간에 탈출이 불가능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

체계적인 방재시스템과 원전 안전교육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다. 영광에서는 원전사고에 대비해 매뉴얼을 마련해 7년전부터 1년에 두차례 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방재훈련을 실시하고, 4년단위로는 전 주민이 참여하는 대피훈련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형식적인 훈련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박 소장은 "대피훈련을 하더라도 1년전부터 훈련을 예고한 후 관 주도로 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면서 "실전에 대비한 예고없는 훈련이 한번도 이뤄지지 않아 비상시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식료품 구하기 장사진 일본 도호쿠 지방에 규모 9의 강진이 발생한 지 엿새째인 17일, 쓰나미 피해지역인 미야기현 다가조시의 한 슈퍼마켓에 식료품을 구하기 위해 몰려든 시민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원전 전력공급 재개·복구 총력전

일본 대지진
관련기사 ▶2·3·4면

피폭 무릅쓴 180명 원자로 식히기 사투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 연결공사가 시작되는 등 대지진과 쓰나미로 처참하게 파괴된 일본 동북부 지역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다.

17일 일본원자력안전보안원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이날 후쿠시마 원전에 전기를 공급하기로 하고 송전선을 발전소 구내로 연결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수몰된 부분이 많은 원자로 2호기를 최우선으로 해 1호기와 3호기, 4호기 순으로 송전공사를 할 예정이다. 원전에 전력 공급이 재개되면 펌프를 통해 원자로와 사용후 핵연료 저장소에 냉각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사고 원전 현장에서는 과열된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 비상근무자 180명이 방사능 피폭 위험을 무릅쓰고 원자로에 바닷물을 들이붓고 있다. 이들은 소방차의 펌프를 원자로 취수구에 연결하거나 원자로 내 온도와 수위를 점검하는 등 극도로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도 이날 오전 헬기를 이용해 원자로 3호기에 물을 쏟아부었다.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그동안 문제가 발생했던 원자로 1~4호기뿐 아니라 지진 발생 당시 정기점검 중이었던 5, 6호기도 연료보관 수조의 냉각 기능 상실로 수온이 상승하는 등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도쿄전력은 이대로 수온 상승이 계속될 경우 5, 6호기도 3, 4호기와 같이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보고 냉각기능 정상화를 위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후쿠시마 원전에서 400㎞ 떨어진 지역에서도 사고 원전에서 날아온 것으로 보이는 방사능이 미량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이와테(岩手)현과 미야기(宮城)현 등 주요 피해지역 대피소에 피난해 있던 피난민 가운데 사망자가 속출하는 등 전체적인 사망·실종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인근 대피소에 피난해 있던 병원 환자 18명이 이송 중이나 이송 후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번 사태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이날 현재 1만4650명으로 공식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미야기현 이시노마키(石巻)에서만 사망·실종자가 1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망·실종자 수가 공식집계를 크게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NHK는 이재민이 44만명을 넘어서고, 주택 등 건물 10만여채가 파손됐다고 보도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연합뉴스

국내 원전 내진 설계 규모 7.0으로 상향조정

정부는 향후 건설되는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내진 설계와 관련, 규모 7.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 참석, "추가로 건설하는 원전 모델은 규모 7.0의 지진에 내구성을 갖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가동중인 국내 원전(21기)은 규모 6.5의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있으며, 정부는 원전을 35기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의 월례회동에서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의 방사성 물질 유출과 관련, "일본 원전은 40~50년 전의 것으로 형이 우리와 다르다"며 "인터넷에서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려스럽다. 이런 루머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준영 지사, 영광원전 안전운행 만전 당부

"도로 확포장 건의, 대피로 확보할 것"

박준영 전남지사는 일본 후쿠시마현 원전사태를 계기로 영광원전의 안전한 운행과 유사시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17일 도민과의 대화차 영광군청을 방문한데 이어 영광원전에 들러 이같이 강조하고 한국수력원자력 영광원자력본부측 관계자들에게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지사는 "일본 원전사태로 향후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며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영광원전측이 안전 모델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박 지사는 특히 "우리나라는 바람의 방향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기 때문에 만약 영광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내륙지방으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유사시에 대비해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둘 것을 당부했다.

박 지사는 "홍농읍에서 원전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왕복 2차로에 불과해 원전사고시 주민들이 대피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면서 "국토해양부에 이 도로의 확포장을 거듭 건의해 유사시 대피로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와 영광군은 수년전부터 정부에 4차선 확포장을 요구해 왔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김대겸 한국수력원자력 영광원자력본부장은 "일본 원전사태가 우리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며 "영광원전은 안전하지만 재점검하고 보강이 필요하면 즉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

17일 영광원전을 방문한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김대겸 영광원자력 본부장(왼쪽)과 함께 6호기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학교설립 57주년(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